

10/9/16

설교 제목: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위에 사랑)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8:1-13

- (고전 8: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절관주** 행 15:20, 고전 4:6
- (고전 8: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 (고전 8: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 (고전 8: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 (고전 8: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 (고전 8: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 (고전 8: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절관주** 롬 14:17
- (고전 8: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 (고전 8: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 (고전 8: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 (고전 8: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절관주** 마 25:45, 행 9:4

(고전 8: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음을 압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주일을 지켜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등등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고.... 등등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 보아도 딱부러지게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크리스찬들은 하는 수 없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게 됩니다만 그 파장은 교회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찬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네 주변에서 부딪히는 이런 예들을 찾자면 술, 담배, 제사
음식, 춤..... 등등이 있습니다.

반주로 와인 한잔쯤 마셔도 좋은지, 담배를 조금씩 피워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지,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술을 내는 것은 어떠한지, 자식
결혼식 파티에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을 껴안고 춤 한번 춰도 괜찮은지 등등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정답이 안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두 곳 있었습니다.

한 곳은 시장이고 다른 한 곳은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도 고기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나오는데 그 고기의 양이 많으므로 신전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싸게 팔았고 가격이 싼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이지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 뿐인데 사람이 만든 신이 무슨 신이냐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도 그저 여느 음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다가 먹어도 아무 이상없다고 생각하며 그 고기를 사다 먹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인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기를 사다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 고기를 먹으면 흑사라도 이방신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신전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놓고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다 먹다니.....

저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사다 먹으니 우리도 그냥 사다 먹자.

그런데 그 고기 먹다가 이방신과 연합되면 어떻하지?

모르겠다. 우선 싸니까 사다 먹자.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다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다 먹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신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깟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개의치 말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와인 한잔쯤 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피우는 것은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요?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술을 내 놓는 것은요?

자식 결혼식 파티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껴안고 춤 한번 추는 것은요?

이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고전 8:1 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고전 8: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전 8: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시고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도 엄밀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기에 그곳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지식을 행사했을 때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고전 8: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지식을 행사하는 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8:1 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지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식이 있는 크리스찬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아무런 꺼리낌없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드는 지식이 없는 크리스찬에 대한 배려를 말합니다.

정말 답답하네, 그런 쓰잘데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이 들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지식을 가진 크리스찬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지식이 없어 그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지식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아무런 꺼리낌없이 사다 먹는 것을 보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지식이 없는 크리스찬은 따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자유가 없으므로 먹으면서도 웬지 마음에 거리끼고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실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다는데에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먹기에 상관이 없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과 이방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제물을 먹기에 그들은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방 신과 교제를 나누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양심도 무뎠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거나 지식이 없는 자들이 본인 스스로 지식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가진 올바른 지식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지식 위에 놓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전 8: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전 8: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전 8: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전 8: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전 8: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까짓 고기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것을 꼭 옳고 그름을 따져서 지식대로 이방 신전에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따라 하게 만들어 그들을 실족시키면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다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하게 한 지식을 행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죄는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8: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 지식이 없는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지식을 가르켜 교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사랑에 기초하여 나오지 않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전 8: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전 8: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으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롬 14: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롬 14: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롬 14: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롬 14: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지식이 없어 어떤 음식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받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오도하여 그가 마음으로 시인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이 되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도끼리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위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